

광주·전남 공항, 저가 항공사 유치로 활로 찾아야

진에어·티웨이 등 국내 5개사 지난해 점유율 54.4% 김해·제주 이용객 급증...대구·청주, 흑자 전환 눈 앞 광주·여수, KTX 호남선 개통에 운항편 되레 줄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본격적인 하늘길 쟁탈전에 돌입했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국내선 위주 공항들은 되레 존폐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X 호남선 개통 영향으로 수익성이 낮아져 있었던 운항편마저 중단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면서 활로를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5개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지난해 54.4%까지 올랐다. 2008년 9.7%에 불과했으나 7년만에 대형항공사를 앞질렀다. 광주·전남에서는 현재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광주~제주노선과 무안~제주노선을 운

항 중이다. 각각 2014년 9월과 11월에 취항했다. 광주~제주는 매주 21편, 무안~제주는 매주 7편을 운항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국제선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저비용항공사들이 중단거리 노선에 속속 취항한데 이어 장거리노선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점유율은 2008년 0.03%였으나 지난해 14.2%까지 올랐다.

저비용항공사들의 비상은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2012년에 비해 300여만명이 늘어나는 등 전국 주요 지방공항들의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같은 기간 700여만명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저비용항공사 효과'

라고 설명한다. 2000년대 들어 KTX 개통, 고속도로 확장 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에 허덕이던 대구·청주 등 지방 공항들이 최근 LCC 국제선을 유치하면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공항과 여수공항 등 광주·전남 지역 공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 처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공항은 대한항공 김포~광주 노선이 지난 2월에 중단됐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 7월 김포~광주 노선을 하루 왕복 5회에서 3회로 줄였다. 여수공항도 대한항공의 김포 노선이 연간 53회에서 42회로 줄었다.

지역 기관단체들은 하루 왕복 2회 운행 중인 광주~인천 KTX 편수를 늘려 4회씩으로 증편하는 안을 요구하는가하면 광주~제주 노선을 확대해 광주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온적인

대처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의 경우 저비용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거점화 전략에도 소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군산에 본사를 두고 인접한 청주공항을 국제선 허브로 삼고 있다. 비(非)수도권 국제선 3개를 모두 대구에 만들었다. 지난해 9월에는 새로 뽑은 객실 승무원을 전원 대구 거주자로 채우는 등 지역 거점화 전략을 쓰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본사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대구를 '제2 허브'로 삼고 비수도권 국제선 3개를 모두 대구에 만들었다. 지난해 9월에는 새로 뽑은 객실 승무원을 전원 대구 거주자로 채우는 등 지역 거점화 전략을 쓰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특히 KTX가 개통한 지역 가운데 국제선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 공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청주처럼 여행사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항공편을 유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은 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한전-SKT 협업 센터(Collaboration Center)를 개설하고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강인규 나주시 시장,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 장동현 SK텔레콤 대표이사,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한국전력 제공>

한전-SKT, 나주에 5천억 규모 전력 ICT사업 추진

협업센터 개소...전기차 충전 인프라·스마트시티 구축 등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지난 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한전-SKT 협업 센터(Collaboration Center)를 개설하고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과 SK텔레콤의 에너지신사업 사업협력을 지난해 9월 전력 및 ICT 사업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스마트시티 구축 등 에너지신사업에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협약의 후속 과정이다. 특히 양사가 전력과 ICT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경제 신사업 모델 개발의 실질적인 동력과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업센터 개소는 대기업 최초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첫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전력과 ICT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양 기업이 스마트시티 구축과 전기차 지능주행 등의 기반기술과 부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밸리에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업센터 개소를 통해 양사는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등 에너지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전력과 ICT기술이 융합된 에너지신사업 분야의 사업모델 개발과 투자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 동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환익 사장은 "양사가 가진 전력과 통신·IoT 분야의 강점을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주도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핸즈 코퍼레이션

아마추어 레이싱대회 후원 협약

금호타이어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내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16'을 후원한다.

금호타이어는 6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본관에서 아시아 1위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업체인 '핸즈 코퍼레이션'과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후원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는 이 페스티벌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됐다.

핸즈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국토교통부의 튜닝 산업 정책에 맞춰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창설된 아마추어 레이싱 대회로 개막 첫 해에 관중 1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 대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7라운드의 레이스가 영남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등에서 개최된다. 총 3개 클래스에 130대의 차량이 참가한다.

대표 클래스는 금호타이어 브랜드 이름을 내건 '엑스타 86 원메이크 레이스', '핸즈 아베오 원메이크 레이스', 1600cc 미만 차량이 참가하는 '핸즈 톱업' 레이스로 구성된다.

원메이크 레이싱은 규정된 동일한 튜닝 및 동일 차종들이 벌이는 레이스로 드라이버의 실력에 의해 경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경태 금호타이어 마케팅 담당 상무는 "레이싱 경기의 승패가 팀워크에 의해 결정되듯 금호타이어와 핸즈 코퍼레이션의 훌륭한 파트너십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1.32 (+8.58)
- ↑ 금리 (국고채 3년) 1.46% (+0.01)
- ↓ 코스닥 694.03 (-1.67)
- ↑ 환율 (USD) 1156.10원 (+1.00)



광주은행-신보, 中企 보증대출 지원 협약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까지 우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출연하는, 'V-Plus협약 보증대출' 상품을 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우수 기술력과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래까지 우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V-Plus보증서대출과 해당 보증서대출금액의 10%이상을 신용으로 추가 지원하는 V-Plus 신용대출로 구성된 복합형 금융상품이다.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의 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보증서 보증료를 매년 0.2%씩 3년간 지원하고, 광주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0.7%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

며, 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 수준에 따라 보증서 담보대출금액의 10%이상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협약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 및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해져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저성장시대에 담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출시한 이 상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 김영구 회장 재선임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6일 김영구(사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세진종합건설 대표)이 제4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11개 지역 건설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김영구 회장 선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부회장에는 송성홍 대한전남건설협회 광주시 회장이, 감사에는 이연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

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 회장 임기는 3년이다.

김영구 회장은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가 지금까지의 화합과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단장장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업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령리 1989-24 (영남동 225-4)

제주아이브

-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드롭송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클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단, 차량이동시간임)
- 한라산등반 최적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단, 차량이동시간임)
-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 엘리베이터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
- 렌트카 90% 할인: 벨라 15평 동나무원을 1박+1식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 단체수요 시설안내: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원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원비, 조·중·석식가능

BYUNG.U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8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